

김용익 개인전, 가까이... 더 가까이...

October , 2016

DESIGN & EXHIBITION



김용익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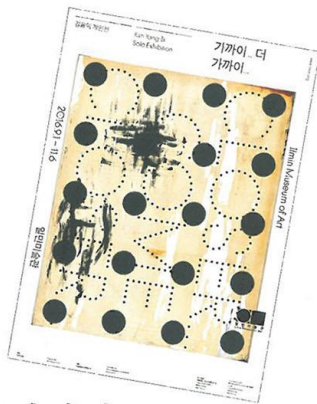
문의 일민미술관 (02)2020-2050 www.ilmin.org

단색화와 민중미술, 대안공간 운동과 공공미술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미술인으로 활동해 온 김용익의 40여 년의 화업을 돌아보는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한다. 그의 1970년대 초기 작업부터 최근 작까지 망라하는 이번 전시는 질곡의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미술가로서 고뇌했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대형 회화, 설치 작품, 글 등 100여점이 공개된다.

첫 번째 전시실에는 김용익이 작업을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작품이 전시된다. 천의 실제 주름과 주름을 그린 그림 사이의 착시를 활용한 '평면 오브제'로 1981년 돌연 이 작품을 종이상자에 봉하며 이전 작업과의 단절을 꾀한다. 이후 판지와 MDF를 이용해 실재와 환영 사이의 형식을 실험하는 작업을 약 10년간 지속한다.

두 번째 전시실에는 작가의 전성기인 1990년대 대형 회화 작업이 소개된다. 캔버스에 같은 크기의 원이 리듬 있게 배치된 '땡땡이 작업'은 가까이 들여다보면 작가의 희미한 메모와 그리고 덮기를 반복한 자국, 얼룩지고 삭은 세월의 흔적들이 모더니즘의 정밀하고 완결된 화면에 균열을 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 전시실은 자신의 작업을 반성적으로 점검하는 태도가 두드러지는 '관 작업'시리즈를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주요 작업이 전시된다. 많은 변화를 거쳐 온 작업의 여정을 스스로 정리하는 형식의 신작들과 함께, 작가의 지난 40년을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아카이브를 선보인다. 전시는 11월 6일 계속된다.



가까이...
더 가까이...

- 01_ Two pieces, acrylic and paint on MDF, 240x120cm, 1989
- 02_ Triptych, acrylic on canvas, oil on canvas, cloth, cotton, wood, ink on paper, coin, incense, burner, oil-based ink on acetate film, 157x226x16cm, 2015
- 03_ Plain Object, airbrush on cloth, size variable, 1977

